

‘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올해 첫발 댄다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K-관광 휴양벨트’로 지역균형발전 2033년까지 3조원 투입... ‘가고 싶은 섬’ 5곳 100억원 씩 투입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3조원 규모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 사업이 올해 첫발을 댄다.

남해안권역을 남도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관광벨트로 조성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기반·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남해안 일대에 주목하고 부산·경남과 함께 이 사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왔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8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세계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는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남해안 일대 광역지자체들을 연계한 ‘K-관광 휴양벨트’를

추진,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3조원,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다.

범부처 협업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도 육성한다. 5개 섬을 선정해 각각 100억원씩을 투입한다.

전남과 부산·경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앞으로 K-관광 휴양벨트와 관련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 추진,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민·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 하동세계차 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남이 가장 먼저 제안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 방안을 마련한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쥐었으면 한다”며 “용역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 기반·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전남 남해안에 최대한 필요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양동 ‘뽕뽕다리’ 새 인도교 8월 완공
과거 구멍 뚫린 철판(안전 발판)을 깔아 다리를 만든 임시가교였던 양동 뽕뽕다리가 8일 오후 65m, 폭 5m의 인도교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공사관계자들이 다리 상판을 교각에 얹고 작업중에 있다. 뽕뽕다리는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설 안전대책 추진

광주시 7곳 안전점검... 연휴 현장순찰 강화·비상근무체계 유지

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마련에 나선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유촌동 차량기지과 본선(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1~6공구 등 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설 연휴 대비 안전, 화재, 방범 등 모든 재해요인 점검 후 정비상태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연휴기간 외부인 건설현장 출입 차단 대책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상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및 이행 실태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설 연휴 전까지 공사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건설현장을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사 현장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김성원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안전관리실장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민원인 위법행위 적극 대응

폭언·폭행 증가세... 담당자 보호·힐링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

전남도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

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약제비를 1인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공간 제공과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관광진흥기금 용자 신청

도, 다음달 3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남도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관광진흥기금 용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용자 규모는 100억원으로 상반기에 70억원을 배정하고 대출금리는 최저인 1.0%로 확정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진흥기금 용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아영장업,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며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자 한도는 대상 업종 및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방문의 해 기간인 올해는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는 1.0%를 적용토록 했다”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된 만큼 도내 관광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 620여억원을 조성,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도내 74개 업체에 35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우농가 사료값 이자 지원

전남도 전국 최초... 농가 경영안정

전남도가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료 구매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국내외 관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농협경제지주 전남영업본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해 가격 하락 원인분석 및 향후전망, 소비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한우고기 가격 하락 원인을 ▲2015년 이후 사육 지속 증가(18만 마리 증가) ▲도축 수 증가 및 쇠고기 10만 톤 무관세 수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 최초 사료 구매자금 1% 이자 지원(24억원), 증축을 향상 지원(14억원)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남도 장터·대형 유통업체, 지역 농축협 할인판매(10~40%), 대형 금식업체 쇠고기 소비 협조 요청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우 사육 수 조절을 위해 저능력우 등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감축 및 정부·농협의 감축사업 참여 유도를 추진토록 하고,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28억원)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는 물론 홍콩 등 동남아시아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 축협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농식품부에 지원대책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